

19일 Market Index			
코스피	4904.66	코스닥	968.36
	(+63.92)		(+13.77)
금리 (국고채 5년)	3.130	환율 (원-달러)	1475.55
	(+0.050)		(+1.95)

스타필드 마켓 찾은
정용진 회장
“1등 기업 본성 회복”
02



홍라희, 2조 삼성전자 주식 처분 12조 ‘세기의 상속세’ 마무리 수순

삼성 오너일가, 6년 걸쳐 납부
홍 명예관장, 상속세 재원마련

상속세만 12조원에 달하며 ‘세기의 상속’으로 불렸던 삼성 오너 일가의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상속세 납부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상속 개시 이후 6년에 걸쳐 납부해 온 상속세 규모는 12조원 이상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최근 삼성전자 보통주 1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종가 기준 금액은 약 2조원대다.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실제 매각 금액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처분은 2026년 4월로 예정된 상속세 최종 납부를 앞두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가는 그동안 보유 지분 매각과 금융 조달을 병행하며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홍 명예관장의 대규모 주식 매각이 단기적으로 수급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처분이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분산 매각되는 만큼 주가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와 실적 개선 전망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번 매각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에는 홍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삼성전자와 삼성SDS 지분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후 이서현 사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생명 주식도 추가 매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가족들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회장은 상속 이후 삼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 지분을 블록딜이나 장내 매도로 처분한 사례가 없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약 19.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개인 기준으로

는 삼성생명 지분도 약 10%대 초반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 직접 보유 지분은 약 1.6% 수준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거쳐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핵심 고리다.

이 회장이 이들 지분을 매각할 경우 상속세 문제를 떠나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전략적으로 지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계에선 이 회장은 지분 매각보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한 금융권 주식담보 대출과 배당금 등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고배당 기초 역시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삼성 오너 일가는 2021년 4월 상속세를 신고하며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납부는 5년간 6회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마지막 납부 기한은 2026년 4월이다. 현재까지 5회차 납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韓-이탈리아,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IMF, 韓 GDP 0.1%p 상향 경제 회복 기대감 ‘솔솔’

작년 추정치 1.0%, 올해전망 1.9%
日 전망 0.7%, 캐나다 1.6% 등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2025년도 경제성장률 추정치와 2026년도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p)씩 올렸다.

IMF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대비 1.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종전(3개월 전)의 1.8% 전망에서 0.1%p 올려 잡은 수치다. 또 작년 성장률 추정치 역시 기존 0.9%에서 0.1%p 높은 1.0%를 제시했다.

게임·탄핵에 따른 혼돈을 추슬러야 했던 2025년이었지만, 내수 진작 등에 힘입어 1% 선은 지켜 낼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어 2026년에 2%에 근접하는 본격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전 세계 GDP가 작년과 올해 모두 3.3%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각 기존 추산·예측 대비 0.1%p, 0.2%p 상향 조정했다.

일본에 대해선 작년 1.1%, 올해 0.7% 성장을 예측했다. 미국 경제 추정·전망치로는 각각 2.1%와 2.4%를 제시했다. 유로존국가 평균은 작년 1.4%, 올해 1.3%를 내놨다.

올해 한국 성장률은 미국에 못 미치지만 캐나다(1.6%), 영국(1.3%), 독일(1.1%), 프랑스(1.0%), 이탈리아

(0.7%)를 제칠 것으로 전망됐다. 선진국 평균은 작년 1.7%, 올해 1.8%로 추산·예상했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발표될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3분기 성장률 비교에서, 14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모두에 앞선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3분기 1.3%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4분기에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호조세가 지속됐을 시 IMF의 추정치인 2025년도 연간 성장 1.0%를 넘어설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IMF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하방위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 소수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집중을 비롯해 여전히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꼽았다.

특히 AI의 생산성·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할 경우,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리스크가 전이·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역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국제 물가상승률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작년 4.1%, 올해 3.8% 수준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국가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코스피 4900 질주 ‘오천피 임박’… 현대차, 지수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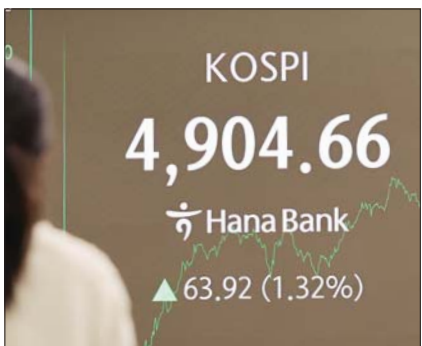
KRX, 1.32% 오른 4904.66 마감
피지컬 AI 기대, 현대차 16% 급등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900선 고지를 밟았다. 현대자동차가 시가총액 3위(98조원)에 오르며 지수를 견인했다. 사상 첫 ‘15만전자’ (장 중)에 오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증시를 떠받쳤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1.32% 오른 4904.66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4900선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는 2019년 9월(13거래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긴 랠리다. 2006년 3~4월에도 12거래일 연속 상승한 바 있다. 코스피 5000까지는 95.34포인트(1.94%)쯤 남았다. 시장에선 “이제 코스피 5000선이 가시권”이라는 말이 나온다. <관련기사 3면>

연초부터 지수를 끌어올린 반도체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대신, 자동차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현대차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대에 힘입어 16.22% 급등했다. 이날 시총은 98조2837원으로 늘어났다. LG에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시총 순위 3위에 오른 것이다. 현대차의 강세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로봇기술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진 영향으로 보인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0.27% 오른 14만9300원에 마감했다. 장 중에는 ‘15만전자’ (15만600원)를 터쳤다. 2위 SK하이닉스는 1.06% 오른 76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으로 촉발된 미국·유럽 간 갈등의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국내 증

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에 관세 폭탄(유럽 8개국에 2일부터 10%, 6월부터 25%의 관세 부과)을 예고하고, 유럽이 반발해 정부 공동 성명까지 내면서 ‘대서양 동맹’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5000 도달은) 1월에도 가능해 보인다”며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부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 추세라면 내일이라도 ‘오천피(코스피 500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이 최근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선 점은 변수로 꼽힌다. 외국인은 이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3조7000억원, 1조6000억원어치 팔았다.

내리세를 이어가는 원화 가치도 외국인의 순매도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값은 전날보다 0.1원 하락한(환율은 상승) 1473.7에 마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홍준표 “공천현금 여전…지금 공천 제도로는 타파하기 어려워” 비판
▲박수현 “1인1표제 의결 서 최고위원 발언 막은 적 없다…오해 있다면 사과” /사진 뉴시스

▲친한파 김종혁, 중징계 놓고 국힘 당무감사위에 윤리감찰 요구 제출
▲통일연구원의 통일부 이관 작업 무산…‘독립성 침해 우려’ 이유

▲한동훈 사과에 野 지도부 총돌…“진정성 없는 말장난” vs “동지의 언어 써야”
▲개혁신당 “李 대통령, ‘통일교·돈공천 쌍특검 요구’에 답해야”